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7.12.(제3762)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신앙인을 위하여

오 하늘의 왕이여, 이 아래를 내려다 보소서!

저희를 도우사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너무도 향기롭게 흘러넘치고, 너무도 저장된 것이 풍성하여,

당신 늘 주고 계시나이다, 그리고 더 주시려 하나이다.

오 우리 생명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나이다.

저희에게 일 있다면 오직 당신을 선포하는 것이옵니다.

은혜 주심으로 인해 드리는 저희의 감사를 열납하소서,

산 자, 산 자만이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주님, 당신 전능하시나이다.

당신의 말씀으로 보호받아, 이제 당신께 예배 드리나이다.

-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오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7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레 송... 64장(1,3절) ...다 같 이 ※영 광 송..... 1장 다 같 이
※예배의부름.....집 례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 119:105, 112)

※경 배 찬 송..... 15장 다 같 이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기며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
을 신뢰하며 영의 생각을 따라 걷는 삶이 되게 하
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
를 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 29번(시편65편) ...다 같 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
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
시나이다
초장은 양 때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
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 도.....홍영기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봉 헌 송... 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정성규 집사

구 약 | 이 사 야 40:26

신 약 | 요 한 복 음 11:17-27

찬 양...주 은혜가...찬 양 대
증 언.....권오진 목사

『 믿음의 한계를 지우라 』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복 의 선 언.....담임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별 목장모임

다음 주: 남녀 선교회 월례회

젊은이예배

오후 2:00, 중예배당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38	영 아 부	10
주 일 2 부 예 배	281	유 치 부	12
주일실시간방송예배	50	유 초 등 부	23
첫 단 추 기 도 회	98	중 · 고 등 부	19
목 장 모 임	.	청 년 부	20
수 요 성 서 연 구	52	예 수 소 망 반	28
수요실시간방송예배	10	생 명 의 삶	-
금 요 성 령 집 회	55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금요일실시간방송예배	28	합 계	112
합 계	612		

현 금			
주 일 현 금	1,621,000	생 일 현 금	150,000
교회학교현금	100,500	선 교 현 금	40,000
월 정 현 금	4,310,000	70주년감사헌금	1,680,000
십 일 조	7,050,000	특 별 현 금	100,000
감 사 현 금	1,480,000	맥추감사헌금	25,563,000
합계 42,094,50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디모데후서 강해 오석만 목사
화	고린도전서 강해 송호준 전도사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요성서연구

7월 15일(수)10:30, 오석만 목사

열린다 성경 “대속죄일”

본문: 히브리서 9장 11-12절

- 금 주 기 도 : 임명숙 권사
- 다음주기도 : 최소연 권사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방 학	박지연 전도사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초 등 부 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 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7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태복수 이찬주	박재훈 김보라 권호진 허상원 전동순 소미숙
안내위원	김유임	
강단헌화	(장춘기 문정이)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조규성 김명훈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인사를 잘하면 인싸가 됩니다”

구 약 시 편 50:23

신 약 누 가 복 음 17:11-19

설 교 : 권 오 진 목사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7월 첫주일이자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일년의 중간 지점인 이맘 때가 되면, 우리 마음에 아쉬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상반기동안 수고하며 달려왔지만 손에 쥐어진 열매는 생각보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세상 일로 기쁜 일보다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더 많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7월 첫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감사주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Thank’가 ‘Think’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어로 생각하다는 Denken(덴켄)이고, 감사하다는 Danken(당켄)입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낼 때,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인사를 잘하면 인싸가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인싸(인사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리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매력적인 사람을 뜻하는 유행어입니다. 반대로 겉도는 사람은 ‘아싸(아웃사이드)’라고 부르지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소외당하는 아싸가 아니라, 사람들의 중심에 서는 인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예의 바르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환영받는 인싸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이와 일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참된 ‘감사의 인사’를 드릴 때, 우리는 세상의 변두리에서 겉도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한복판에 서는 영적인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구약 시편 50편 23절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인싸’가 되는 법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제대로 올리는 예배자가 결국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진짜 인싸’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구원의 한복판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믿음: 구하는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는 이 영적 원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의 한 마을을 지나실 때, 나병환자 열 명이 멀리 서서 간절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가다가 모두 깨끗하게 치유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열 명 모두 대단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순간, 이 열 명의 인생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고침을 받은 아홉 명의 유대인 환자들은 그 길로 앞만 보고 직진해 가버렸습니다. 빼앗겼던 일상과 사회적 지위를 되찾아 세상의 중심인 ‘세상 인싸’로 복귀하기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간 것입니다. 이 아홉 명의 믿음은 내 필요를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는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은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소외된 아웃사이드였을지 몰라도, 주님께 최고의 감사 인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 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인싸’가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바

로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적만 맛보도 떠나간 '구하는 믿음'과, 주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하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크게 두가지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1. 구하는 믿음은 문제해결이 중요하고, 감사인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중요하다

첫 번째 차이는 구하는 믿음은 문제해결이 중요하고, 감사인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아빠에게 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두 자녀에게 만원의 용돈을 주었습니다. 어느날 아빠가 갑자기 만원 현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두 자녀에게 만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첫째 아이는 "싫어, 아빠가 나한테 준 거잖아. 내 돈이야"라며 거절합니다. 반면 둘째 아이는 한 순간의 고민도 없이 자기 지갑에서 만원을 꺼내 주며 말합니다. "이거 원래 아빠 돈이잖아요. 아빠가 다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부모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둘째 자녀의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예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만원이 아니라, 이만원, 십만원, 신용카드라도 아낌없이 쥐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두 아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첫째에게는 '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중요했지만, 둘째에게는 그 용돈을 주신 '아빠'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하는 믿음은 '문제해결'이 목적입니다. 어떻게든 내 앞에 닥친 이 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고침을 받자마자 세상의 인싸가 되기 위해 직진해버린 아홉 명의 유대인이 바로 이 '구하는 믿음'에 머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인사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과정은 똑같을지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분임을 알기에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분께 유턴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와 경배가 곧 진정한 '감사의 인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의 예배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문제해결에만 간혀 있는 어린 믿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감사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2. 구하는 믿음은 육적인 믿음이고, 감사인사하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다

두 번째 차이는 구하는 믿음은 육적인 믿음이지만, 감사인사하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구하는 믿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즉 내 사업, 내 공부, 내 건강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조건과 이 땅의 안락함에 머무는 육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감사인사하는 믿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이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환자 모두가 나병이라는 육신의 문제, 이 땅의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드렸을 때, 육신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구원'이라는 본질적인 영적 선물까지 받아 누렸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해하지 말 것은 감사인사를 드리는 행위가 그 사마리아인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감사하는 믿음은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음을 언급하며 경고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영적인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하지만, 감사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기에 원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 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림으로, 이 구

원의 문을 지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의 인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싸로 살아가는 삶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되어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에 실천하기를 원하는 세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1.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감사로 채우십시오

본문의 사마리아인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듯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도 '감사 유턴'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는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고, 잠자리에 드는 밤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제목 3가지를 주님께 올려드려 보십시오.

"오늘 무사히 출퇴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쳐 있을 때 동료가 건넨 커피 한 잔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안전하게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 올리는 이 감사의 인사가 우리를 늘 주님 곁에 붙들어 매어 줄 것입니다.

2. 기도의 무게중심을 문제해결에서 하나님께로 옮기십시오.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만원짜리 용돈에 집착하는 어린아이처럼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는 육적인 간구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문제해결이라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집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할 때 내 요구사항을 먼저 쏟아놓기보다,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으로 기도의 무게중심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여전히 나병 같은 문제가 있고 진물이 흐르지만,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제게는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영적인 믿음 위에 주님은 나병 같은 문제도 해결해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 원망과 짜증의 이유를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먼저 튀어나오기 쉽습니다. 원망은 우리를 멸망으로 직진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짜증의 감정이 입술 밖으로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영적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 불평의 감정이 올라올 때 "~때문에 짜증 나"라는 말을 "~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로 바꾸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출근길이 막힐 때 "길이 왜 이렇게 막혀!" 라는 짜증이 올라온다면, "차가 막혀서 늦어지지만, 비 오는 날 안전하게 앉아서 갈 수 있는 차가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하는 말이 목구멍에 걸린다면,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주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Thank)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각(Think)에서 나오는 훈련'입니다. 불평을 감사로 덮어버릴 때, 원망의 아웃사이드였던 우리 인생은 원망의 대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인싸로 일어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단순히 필요만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구하는 믿음은 문제해결이 가장 중요하지만, 감사하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믿음입니다. 구하는 믿음은 육적인 믿음이지만, 감사하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며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도 세상 중심을 향해 달려가던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에 주님 앞으로 '유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사를 잘하면 인싸가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감사로 고백하고, 기도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두며, 삶의 짜증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 인사를 드림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인싸,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

십 일 조 헌 금 (강현중 김숙자) (김준수 최희성) (신충우 김영미) (이수용 인경구) (김명중 장계순) 김민희 (김병일 박경아) (김수녕 최정애) 노선우 노현우 (박창환 조영신) 서성옥 손세운 여혜경 원혜옥 이순희 이진숙 장은숙 전명숙 (조규성 정미애) 조순임 (차상옥 석진숙) 홍정순

월 정 헌 금 김준자 (심대섭 류은숙) (강성배 박봉주) (권영만 최명희) (권호진 정장미) (김광선 김영중) 김선경 (김성옥 이현희) 김연혜 (김의겸 여혜순) (김종근 이연석) (김진우 한은숙 김카시아) (노정훈 안명숙) 박석순 (박정화 조인자) 박천숙 박현중 (손희열 윤순례) (송양근 조혜선) (신영수 유경순) (산옹식 최진여) 유명순 유영순 유윤자 이정애 (이동현 이은주) 이성주 이인숙 이찬주 (장재혁 이은영) 조혜자 (최은규 장미자) 태복수 홍완숙 (홍준일 김현주)

감 사 헌 금

김미광 : 지난 주일 6K 행사를 온 교우가 사랑의 마음으로 한마음되어 기쁨과 은혜 안에 진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치년 홍주연) : 주님 은혜 가운데 이사 잘 마쳤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정희 : 하나님의 은혜로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손들 믿음으로 주일성수하게 해주시고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이 백성 지켜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손희열 윤순례) :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신일철 이태영) : 목사님, 사모님 부임심방 오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용훈 : 작은 이익을 다시 드립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기쁠 때, 감사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유경순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기범 차진영 훈민)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서영 제인 신우) : 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정실 황문연) :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진숙 : 온 가족이 행복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기쁨 되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조규성 :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건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시며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조성규 권은정) : 조별회가 군대 제대 할 때 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순임 :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한없이 감사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형준 김미경 은서 은혜) :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무 명 : 주님의 것 드립니다.

무 명 : 배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모든 관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 일 헌 금 손양민 안민호 조규성

선 교 헌 금 (노정훈 안명숙) 오혜리 이진숙

특 별 헌 금 강단현화 (김산옥 구용연) 창립70주년(6K) (황한규 유경희) (권영만 최명희) (손세운 곽정민) 오금복 우철주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목장 모임 : 오늘 예배 후, 목장별로 있습니다.
- 총 목자모임 : 오늘 오후 2시 15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 영아부 여름성경학교 :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오늘과 19일(주일), 26일(주일), 8월 1일(토)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 '성막,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로 18일(토), 19일(주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 부임 심방 : 최아자 권사
- 금요성령집회 : 17일(금) 제헌절 휴일로 쉽니다.
- 이웃사랑 나눔 프로젝트 결과보고 : 19일(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 2026년도 2학기 장학생 후보 신청접수 안내 :
 - 1) 대상 : 아현중앙교회 교인 및 자녀(고등학생, 대학생), 신청 가능 대상자(홈페이지 참고)
 - 2) 제출기간 : 8월 9일(주일) 오후 3시까지 도착 분
 - 3) 신청 및 문의 : 교회 홈페이지, 오석만 목사

■ 모임안내

- 한나목장 : 오늘 12시 40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 한나회 야유회 : 19일(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신촌 형제갈비에서 있으며, 낮 12시 20분에 교회버스가 출발합니다.
- 서대문지방 여선교회 계삭회 : 14일(화) 오전 10시 30분, 성은교회에서 있으며, 교회에서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 중고등부 학생 및 지역 청소년 대상 여름병학 특강(오리엔테이션) 입시 언어영역 및 논술 특강 오리엔테이션을 19일(주일) 오후 1시 소예배당에서 진행합니다(강사 : 박희 성도 / 대상 : 본교회 중고생 학부모, 학생, 지역 청소년(부모) 모두).

■ 교우동정

- 감사 : 오늘 떡을 후원해 주신 최난주, 한애선 권사께 감사드립니다.
- 이사 : 김치년 홍주연 권사 / 서대문구 경계대로 26-7

♣ 여름철 신앙교육활동

영 아 부	7.12(주일)/7.19(주일)/7.26(주일)/ 8.1(토)
유 치 부	7.18(토) - 7.19(주일)
유초등부	7.25(토) - 7.26(주일)
중고등부	7.31(금) - 8.2(주일) (국내선교)
청 년 부	8.21(금) - 8.23(주일) (국내선교)
여선교회	8.5(수)

■ 온라인 헌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헌금 내용(헌금자명+헌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7월 중 행사

- 이웃사랑 나눔 프로젝트 결과보고 : 19일(주일)
- 목장모임 : 25일(주일)

■ 금요성령집회는 제헌절 휴일로 쉽니다.

■ 주일아침예배(7월 19일)

대 표 기 도	조 영 익 장로
성 경 봉 독	조 은 지 집사

■ 주방봉사

- 이번 주 : 4초원
- 다음 주 : 1초원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 로 목 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 담 임 목 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 련 목 회 자 송호준
- 전 도 사 박지연
- 교 육 전 도 사 서지수

- 소 속 목 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 가 지 휘 김정희 김병일
- 반 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

맥 . 추 . 감 . 사 . 헌 . 금

(헌금 : 25,563,000원)

(권오진 조고은) (윤병상 차현일) (백구영 조혜자) (손운산 구영숙) (이선균 차경연) (손민승 방세미) (오석만 김선아) (장재호 전소은) (송호준 황영진) 박지연 서지수 (강정훈 황인선) (구본수 송명희) (권혁성 손양민) (김기석 나영임 김소희) (김명훈 김수미) 김미광 (김주인 김춘강) (김준수 최희성) 김준자 (김철희 이후남) (김한중 김현숙) (박범택 윤옥희 김순여) (배운덕 최영숙) 서태희 송숙희 (송재용 홍영기) (신충우 김영미) (심대섭 류은숙) (안대형 최미숙) (오보환 전소영) (이수용 인경구) (이평식 김영숙) (장영철 서금섭) (조상현 김현숙) (조순형 백문희) (조영익 태성희) (최태성 김지애) (황한규 유경희) (강성배 박봉주) 강정희A 고광섭 (고영천 임선영) 고원옥 권소운 (권영만 최명희) (권원자 이소영) 권이현 권정임 권효정 길경은 (김경행 전차월) (김광선 김영중) 김규례 (김덕환 최현숙) 김도아 김도이 (김동수 전순남) (김명중 장계순) (김문기 정진화) (김병일 박경아) (김상길 정윤희) (김상진 이수미) 김서운 김서후 김선경 (김선옥 구용연) (김성겸 이윤진) (김성옥 이현희) 김연금 김연옥 김연혜 (김영숙 유하동) (김영화 천홍주) 김예린 김예원 (김은순 한진규 김민선 한다숨) (김의겸 여혜순) (김재성 이해민 김민겸) 김정자 (김정훈 이주연) (김종근 이유진 김리원) 김지민 (김진태 이미옥) 김태민 김하늘 김현옥 노선우 (노정훈 안명숙) 노현우 (류기운 송현숙 류한아 류준혁) 민정숙 (박상근 차용분) 박석순 박소자 (박영수 류기너 박종관) (박영식 정명자) (박재훈 김보라) 박정미 박정숙 박천숙 박현중 박희 배순조 (배하누 이효은) (백진호 박영옥 백수예) 서병옥 서성옥 (서정식 이인숙 회운) (서중길 임명숙 서진원) 성봉구 (송양근 조혜선) 송이한 송주영 신경희 (신영수 유경순) 신영애 (신일철 이태영) 신재신 (심영관 문미영) 심유진 안수아 안예준 양용자 엄영숙 여혜경 (오금복 임경진) (오성안 조삼순) 오여름 오하늘 오혜리 우철주 원혜옥 유명순 유영순 유운자 유은애 유은종 윤순례 윤영화 윤인숙 이경애 이경희 (이남규 이은선) (이동일 최은주) (이명근 윤영은) (이명렬 최성애) (이명애 최소연) (이상환 최선규) (이서구 김정희) 이성주 (이성호 강숙희) 이순희 이안 (이용학 백현애) 이용환 이인숙 (이재화 홍석은) (이정실 황문연) 이정임 (이종창 소미숙) 이지혜 이진경 이진숙 이찬주 (이태영 이옥희) 이한나 이해순 이해수 이호순 (이활 김미영) 이희숙 임서하 임선희 임현정 장균복 (장만섭 고순문) 장세빛 (장영재 강정희) 장은숙 (장재혁 이은영) (장춘기 문정이) 장하빛 전동순 (전상주 최옥자) (정도영 안민호) 정옥자 (조규성 정미애) (조성규 권은정) 조순임 조은지 조인자 조혜성 진한결 (차상옥 석진숙) 차정옥 (채상식 김지은) (채의병 문정은) 최경애 최난주 최보군 (최영섭 서인숙 최경훈) (최은규 장미자) 최정애 추화순 태복수 한애선 허상원 홍여람 홍연채 홍완숙 홍윤기 홍정순 (홍준일 김현주) 황공자 무명11

비 준비하시니

심형진

G C Em7 C

5 G C D

우 리 주 는 위 대 하 며 능 력 이 많 으 시 도 다

9 C D G C Dsus4 D

그 의 지 혜 무 궁 하 며 인 자 는 영 원 하 도 다

14 G C D

상 한 자 들 고 치 시 며 상 처 를 싸 매 시 도 다

18 C D Em7 C Dsus4 D

별 들 의 수 를 세 시 며 이 름 을 불 이 셴 도 다

23 C G C

그 가 구 름 으 - 로 - 하 늘 을 덮 으 시 - 며 땅 을 위 하 여 - 비 준 비 하 시 니

26 Dsus4 D G D Em7 C G Am7 Dsus4

- 예 루 살 렘 아 여 - 호 와 를 - 찬 송 할 지 어 다 - 네 하 나 님 을 - -

31 G D Em7 C Dsus4 D G

감 사 함 으 로 그 앞 에 나 가 며 - 주 임 재 앞 에 경 배 해